



이재식지회장

## 서울 서부지회

# 친목과 업계 기술 인력 수급의 산실

60년대 궁핍의 시대를 살아 온 사람이라면 기억나는 추억이 있을 것이다. 미국의 무상 원조 밀가루로 만든 빵이 그것이다. 쌀의 자급자족이 힘든 시절, 정부의 분식 장려 정책에 힘입은 우리 제과업계는 그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현재에는 시장규모가 1조 원을 육박할 정도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런 성장의 이면에는 우리 제과업계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인력 수급 문제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절대적인 인력 부족과 잦은 이직은 제과업계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술 향상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러 면에서 볼 때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 협동의 규범으로 우리 제과업계의 인력수급에 일익을 담당해온 서울시 서부지회의 역할은 자못 크다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서부지회(회장 이재식)가 창립된 것은 1968년 지회 창립에 앞서 몇년전부터 교류가 있던 지역 20여개 업소가 주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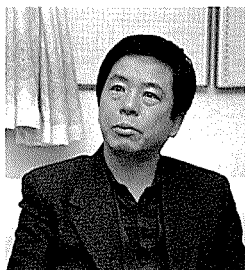
안승률부지회장



어영준고문



손장태친목회장



최성관이사



박동래이사



장옥순이사



박찬부이사

이 되면서부터였다. 당시 지역적으로 중심 상가가 아니었던 서부지회가 지회 설립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업주들의 돈독한 친목과 유대 관계였고 그때의 사정을 아는 원로들은 입을 모은다.

이렇게 해서 연유한 서부지회 회원들의 친목의 역사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지회 사무실을 들어서면 정면으로 보이는 「회원으로부터 신뢰받는 협회」, 「회원에게 도움을 주는 협회」, 「회원들이 항상 찾는 협회」라는 협회훈(協會訓)에서 잘 나타난다. 이 모든 것이 회원 상호간의 친목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인화단결을 토대로 서부지회의 과우친목회는 1년에 봄·가을 두번 야유행사를 통해 친목을 다지는 한편 회원들의 애경사에 참석해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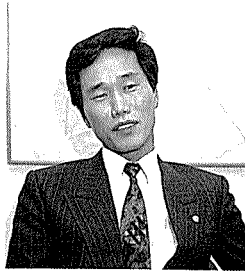
현재 서부지회의 관할 지역은 서대문구·은평구 26개동으로 총 205 회원이 참가하고 있으며 홍제동, 응암동, 연신내 지역이 상가 형성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회원 상호간의 돈독한 친목과 함께 서부지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산학 협동을 통한 업계 인력 수급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관내 고양종고와의 자매 결연이다.

1989년 25명으로 구성된 장학회가 주축이 되어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서부지회는 초기 학교 식품가공과에 제과 실습에 필요한 기물과 오븐, 믹서기, 락카, 진열장 기증을 비롯해 매년 졸업식 때마다 우등생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또 고양종고 식품가공과 3학년 학생들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동안 친목회원의 제과점에서 실습시킴과 동시에 직원으로 채용토록 배려하고 있다.

현재 매년 고양종고의 식품가공과에서 배출되는 제과인력은 약 30여명 정도. 총 졸업인원 45명중 상당수의 비율을 차지하며 자매 결연 5년 동안 어림잡아 150여명이 배출돼 결코 적지 않은 수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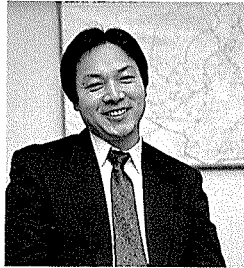
김 승 준이사



노 광 석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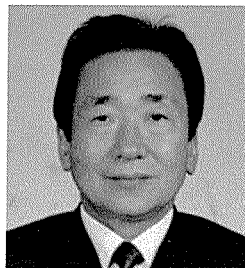


원 철 회이사



김 홍 기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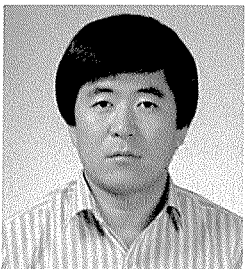
회원 상호간의  
돈독한 친목과 함께  
서부지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산학 협동을 통한  
업계 인력 수급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규 대이사



구 자 흥 사무국장



박 성 원감사



홍 민 희 자물지도원

이밖에 서부지회는 매년 가을에 개최되는 고양종고의 '은백양 축제'에 참여, 케이크 및 제과 제품을 출품 진열함과 동시에 초빙되는 외부 인사의 선물용을 협조함으로써 제과업계의 위상을 높이는데 한몫을 담당하고 있다.

서부지회의 자매 결연에 힘입어 학생들의 식품가공과 인기가 대단하고 이런 사실이 도교육청에까지 알려져 학교 지원 특별 예산이 책정돼 식품가공과 실습실 신설 계획이 추진중에 있을 정도이다

서부지회의 고양종고 자매 결연은 지역내 자체 인력 수급을 위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배출된 기술 인력이 타 지역에서 제과업에 종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제과업계 기술 인력 수급에 이바지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서부지회는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결연 관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94년 들어 서부지회는 지회 조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지회 산하에 각 지역별로 운영하는 지역제 실시가 바로 그것이다. 그 지역에서 리더쉽이 있는 회원에게 총무의 역할을 담당케하고 지역장을 선임해 지회의 역할을 분담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역제가 실시되면 행정적 사항이나 주요 사안에 대해 연락 체제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뿐더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 더 긴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지회 재정을 풍족하게 하기 위해 공동구매 사업도 계획 중이다.

앞서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서부지회가 자매 결연을 통해 우리 제과업계의 인력 수급에 이바지한 역할은 결코 적지 않다. 배출 인원의 수는 접어 두고라도 이런 활동이 차지하는 의미가 자못 크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부지회의 발전을 점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보여준 회원들의 친목과 단결이 바탕이 돼 금년 내 시행될 지역제 실시 등을 통해 조직 활성화와 발전을 점칠 수 있는 까닭이다. [본]  
(글 박종선)